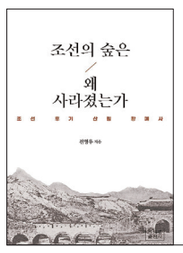
울창한 조선 산림 왜 민둥산으로 변했을까?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
전영우 지음
조계종출판사/2만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인 전영우 선생이 조계사 경내에서 웃고 있다.



"인간이 숲을 동경하는 이유는 그저 숲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오래된 숲의 고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에 존재하는 미묘한 무엇인가가 사람의 지친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조선의 숲 사라진 이유와 과정을 탐구
조선 산림 황폐화 임진왜란 직후부터
소나무 위주 목재 사용 황폐화에 일조

숲은 수풀의 준말로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곳'을 뜻하나, 일반적으로는 '수풀'보다 '숲'이 훨씬 널리 쓰인다. 한자어로는 삼림(森林)이라고도 하며, 특히 빽빽한 숲은 밀림(密林)이라 한다. 조선시대에는 산림이 울창하고 숲이 깊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짐작과 달리 중기 이후 조선의 숲은 황폐화로 치닫고 있었다. 한일 병탄 직전 조선 산림은 삼남 지방 대부분이 민둥산이었다.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난개발도 없을텐데 말이다. 은퇴한 산림학자가 이렇게 조선의 숲이 사라진 이유와 과정을 탐구했다.

임진왜란 당시만 해도 단기간에 수십 척의 전함을 건조할 만큼 풍성했던 조선의 산림은 무려 250년 동안 황폐화가 계속된다. 조정의 미봉적인 소나무 중심의 산림 정책, 왕가와 권문세족의 이기적인 산림 사점과 남벌, 소빙기로 인한 한반도 전역의 온돌 보급과 땔감의 급증,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벌목 등이 조선의 숲을 사라지게 만든 그 이유이다.

저자는 조선시대 공식 기록물은 물론 사대부의 문집과 향리에 낙향한 무신 일기까지 뒤져 조선의 산림이 황폐화된 과정을 추적했다. 부족한 양묘 및 조림 기술, 수목의 가치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 부재, 부실한 제재 도구와 목재 운송 수단 등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술적, 사상적 후진성까지 이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산림의 효용과 가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즈음 조선시대 산림의 참혹한 파괴 역사를 충실하게 톺아낸 이 책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 산림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론을 일깨워주는 생태사, 미시사 분야의 걸작이다.

조선 후기 삼남 山은 모조리 민둥산으로 변했다

오늘날 한국은 단위 면적당 산림 축적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헐벗은 산림 환경에서 출발해 조림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럼 일제 강점 이전의 조선의 숲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산업도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식민 착취가 시작되기 이전이었으니 한반도 전역이 울창한 숲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1910년 실시된 조선총독부의 산림조사에 따르면 당시의 전체 산림 면적(15,849,619정보) 가운데1/3이 채 안 되는 32.3%만이 무성한 숲일 뿐, 나머지는 조악한 어린 나무로 구성된 숲이거나(41.8%), 아예 나무가 없는 헐벗은(25.9%) 상황이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남부 지방의 산림 황폐화는 극심해서 대부분의 산이 민둥산이었다.

조선의 숲은 대체 왜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산림은 쉽게 복원하기도 어렵지만, 쉬 망가지지도 않는다. 언제 어디서부터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의 숲이 망가지고 사라졌는지, 완벽하게 입체적으로 추적한 것이 바로 〈조선의 숲은 왜 사라졌는가〉이다. 이 책은 조선의 산림 황폐화가 이미 임진왜란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증언한다.

1611년의 실록은 벌목으로 인해 도성 안팎의 산들이 민둥산으로 변한 책임을 한성부 당상에게 묻고 있다. 나라에서 금령을 엄히 다스려도 "도성 사방에 있는 산들이 볼품없이 벌거숭이가 되어 이미 민둥산이 되어 버렸다."는 1621년 기사는 산림 파괴의 심각성을 증언한다. 18세기에 이르러 헐벗은 한양의 사산(四山)에서 유출된 토사가 청계천의 하천 바닥을 높여 도성에 물 난리(1752. 1. 27.)가 발생하고, 종국에는 청계천 준설(1760)로 이어져 도성 주변이 모두 헐벗었음을 전한다.

저자에 따르면 조선 숲의 황폐화는 적게 잡아도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말까지 250여 년 동안 진행되었다. 정밀한 연구에 바탕을 둔 추정을 통해 저자는 조선 건국 초기(1400년)에 비해 조선 남부 5도의 임목 축적량이 1700년에 이미 절반으로, 1900년에는 1/3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인구 증가까지 감안하면 정조 시대인 1800년 1인당 임목 축적량은 건국 당시의 9%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250년에 걸친 조선 숲의 황폐사를 책은 절절한 마음으로 담아낸다.

기술 검토와 문헌 추적으로 밝힌 지도층 문제점

이 책은 인구 증가와 소빙기 도래에 따른 목재 사용량 증가 등 그간에 학계에서 추론하고 있던 사항 외에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저자는 조선시대 공식 기록물은 물론 사대부의 문집과 향리에 낙향한 무신 노상추의 일기까지 뒤져 조선의 산림이 황폐화된 과정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나 인구학적인 요인 외에도 조정과 사대부 등 지배층의 안이한 산림 인식, 왕가와 권문세족의 이기적인 산림 이용과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벌목 부족한 양묘 및 조림 기술, 수목의 가치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 부재, 부실한 제재 도구(켜는 톱)와 목재 운송 수단(수레와 도로) 등 지금까지 학계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술적, 사상적 후진성까지 꼼꼼히 살펴본다. 예를 들자면,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까운 산의 나무를 남벌한 데에는 운송 수단의 미비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이면에는 지배층의 이념적 성향이 작용했다. 조선 조정이 도로 정비와 수레 개선을 도외시했던 배경에는 잘 정비된 도로가 외적의 침략 통로가 되어 한양이 쉽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군사적 우려와 수레의 보급이 성리학적 통치 이념에 반하는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잠재되어 있었다.

목재 유통의 또 다른 제약 요인에는 제재 도구도 있다. 원목을 판재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성능 좋은 철제 톱이 필요했지만, 켜는 톱을 제작하는 전문 장인이 많지 않아 널리 보급되지 못했고, 때문에 재질이 단단한 참나무 같은 활엽수종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자연히 도끼나 자귀 등으로 쉽게 다듬을 수 있는 소나무 위주로 목재 사용이 편중되어 산림의 황폐화에 일조하게 된다. 열악한 종묘 및 조림 기술 또한 산림 황폐화를 막지 못한 큰 원인이었다. 저자는 18세기 정조의 현륭원 식목 사업에 관한 문헌 〈현륭원등록〉 〈일성록〉 등을 샅샅이 뒤져 그 기술 수준을 따져본다.

또한 책에는 한정된 능역에 많이 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식목 후 생존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그 원인을 분석한다. 18세기 말에도 조선에는 제대로 된 양묘 기술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재배 수종 뽕나무는 15세기에 이미 양묘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산림 수종 소나무 및 참나무와 가래나무의 양묘 기술은 현륭원 식목 사업이 진행된 18세기 말은 물론이고 20세기 초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19세기 말에도 나라 전역에서 이루어진 소나무 조성 사업은 대부분 파종 조림으로 이루어졌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현륭원은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정조의 부친 사도(장헌)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함께 묻힌 곳이다. 왕조 시대에 임금이 직접 관장한 국책 조림 사업조차 인근에 자라는 소나무를 옮겨 심어야 했기 때문에, 10그루 중 겨우 2그루나 살릴 수 있을 만큼 조림 양묘 기술이 극히 낙후했던 것이다. 이처럼 문헌과 기술적 분석, 분야별 목재 사용량에 대한 자세한 추정 등 입체적으로 진단한 끝에 내린 저자의 결론은 조선 지배층이 산림 지속성 유지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의 산림 황폐는 산림 정책 부재, 조림 · 양묘 기술 미비, 민간 참여 배제, 권력층의 부패, 목재 및 땔감 생산 체계 부재와 온돌의 전국적 보급이 결합한 결과였다고 저자는 결론 지은다. 산림 황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이 모든 원인은 산림 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조선사회와 그 당시 지배층의 잘못된 산림 인식 탓이었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노상추 일기와 70대 노 산림학자의 집념

이 책은 우리 숲의 장기적 생태사를 정리해낸 생태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저작인 것은 물론,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탁월한 미시사 분야의 역작이기도 하다. 책은 관의 부당한 벌목이 얼마나 자행되었는지, 민간에서는 조림을 위한 공동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경제적 수익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일반 주택 한 채를 짓는 데 목재가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등 나무를 매개로 한 선조들의 생활사를 눈앞에 그려질 듯 펼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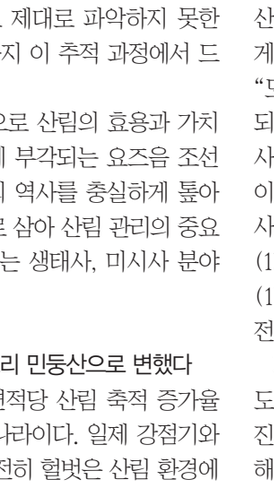
이 책의 상세한 분석은 많은 문헌 검토와 고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정조 시대 퇴역 무인이었던 노상추의 일기이다. 노상추(1746~1829)는 17세부터 84세(1829년)까지 67년간 한문 일기를 썼고, 그 중에는 산림 조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이 일기가 조선 후기 산림 육성과 송계 활동, 당시의 산림 상황을 생생히 전하는 주요 자료라고 평가하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낙향한 무신이 평생 기록한 일기가 조선의 숲 탐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 또한 70대에 접어든 은퇴한 산림학자로서 우리 산림에 대해 연구하고 기록하며 많은 책을 집필한 인생 행로가 2백여 년의 세월을 넘어 노상추의 행적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룬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조선 후기의 산림 황폐화 연구는 관심을 둔 연구자도 드물고 관련 자료조차 구하기 쉽지 않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칠순의 산림학자가 도전하기 좋은 과제였다."고 토로한다. 이처럼 이 책은 평생을 우리 숲 연구에 바친 노학자가 집념으로 써내려간 역작이며 역사, 생태학, 산림학 분야의 귀중한 성취물이라 할 수 있다.

▲저자 **전영우**는?

1951년 경남 마산서 태어났으며, 고려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산림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학과 명예교수이다. '숲과 문화 연구회' 회장, '숲 해설가 협회' 공동 대표, (사)생명의 숲 이사장,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동승학술재단 사무국장, '솔바람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산림 문화 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2004), 자연 유산의 보존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2019)을 수훈했고, 불교출판문화상 우수상(2011, 2019)과 '가장 문학적인 학자상'(2011, 문학의 집 서울)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산림문화론〉 〈숲과 한국문화〉 〈나무와 숲이 있었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숲과 문화〉 〈한국의 명품 소나무〉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궁궐 건축재 소나무〉 〈한국의 사찰숲〉 〈송광사 사찰숲〉 등이 있다.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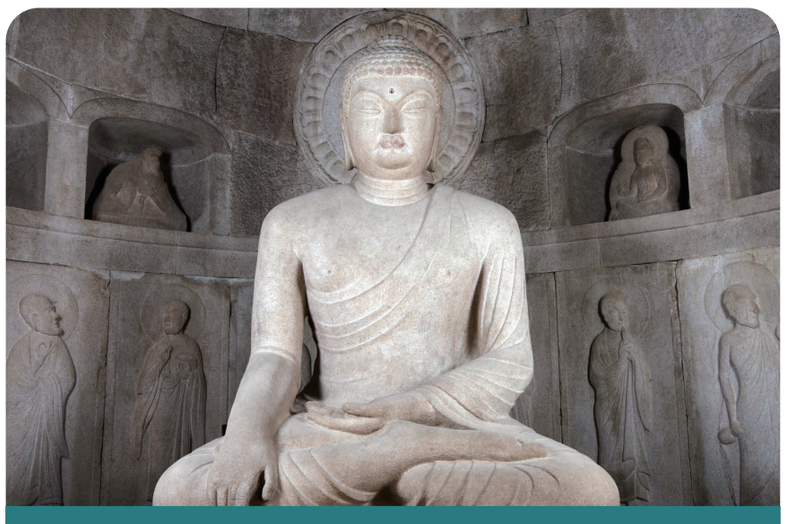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4

에리히 프롬과 불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프롬은 왜 불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보았는가? 프롬은 왜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고, 불교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찬국 지음/신국판/316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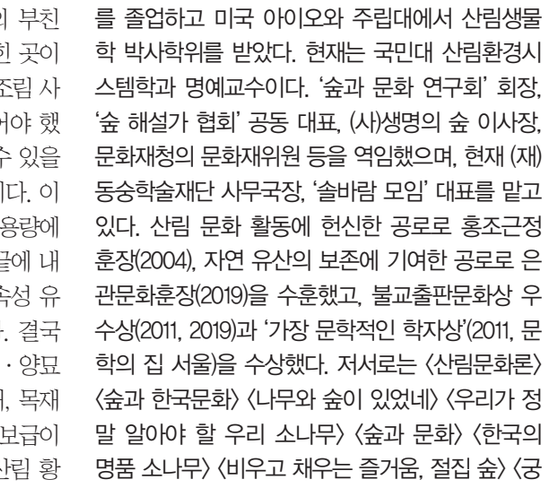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어린이의 인성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일깨워줄 불교동화!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보시 사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이한영 글/김승연 그림/컬러/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